

# 기금일몰 앞둔 5개 기금 존치 검토

### 도, 5월경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 연장 경우 9월까지 조례 개정 등 절차 밟아

전북도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 5개 기금이 올해 말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존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운용하는 모든 기금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기금일몰제를 운용하고 있다.

일몰제를 적용하면 의무적으로 설치된 재난관리,재해구호,식품진흥기금 등 법정무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에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존속기한 만료 전 전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

의를 받아 연장 또는 폐지가 결정된다.

전북도 14개의 기금 중 법정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이 일몰제를 적용해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중 올해 말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5개 기금이다.

전북도는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인,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5월경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

다.

위원회에서 연장이 결정된 경우 9월까지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폐지 결정된 기금의 경우 존속기간 만료 후 조례 폐지 등 폐지기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전북도는 올해 기금으로 편입된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해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금 조성액은 13개 기금 3,093억원(지역개발기금 제외), 올해 일몰제 대상인 5개 기금 조성액은 2,167억원이다.

한편 지난해 행정자치부 주관 기금성과분석 결과 전북도는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행정자치부 2015년도 기금운용 우수단체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곽승기 예산과장은 "일몰제 대상 기금의 운용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일몰제 이행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전북연구원, 도민 제안과제 시상

전북연구원은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열린연구, 좋은연구' 과제 도민 공모결과 우수상 1편, 장려상 1편 등 모두 2편을 선정하고 13일 연구원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3회째인 연구과제 도민공모 결과, 우수상에는 순원회씨가 제안한 '식품산업의 생산기술 변화와 식품기술 인력양성 방안 연구'와 이종근씨의 '디지털 광통신의 원형 봉수를 통한 포스트스크 예코뮤지엄'이 영예를 안았다.

전북연구원은 순원회씨가 제안한 식품산업 과제는 기술변화에 대응한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재용 기자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기계기공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자동차융합기술원(사)한국기계기공학회가 13일 자동차기술원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기계기공산업과 뿌리산업의 스마트 제조 혁신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정신건강 시 백일장' 작품접수

전북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개소 5주년을 기념해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정신건강 시 백일장'을 마련했다.

이번 백일장 공모주제는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친구에게 전하는 시'로 도내 중고교생 및 같은 연령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응모기간은 10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수상자 발표는 7월 3일이다.

접수는 전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www.jmhc.or.kr) 공지사항에서 응모용지 다운로드 후 작성해 이메일(jmhc@hanmail.net) 혹은 우편으로 하면 된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에게 각각 문화상품권 20만원, 10만원, 5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 전북도, 인공어초 설치사업에 32억원 투입

### 방축도·명도·말도·위도 해역에 설치... 어장관리사업 1.4억원 투자

전북도는 도정의 핵심정책인 삼남호정의 구현 및 해양수산업 재도약 프로젝트의 실현과 연안해역의 어업생 산성을 증대하기 위해 물고기 아파트로 불리는 인공어초설치사업을 올해에도 32억원을 투입해 군산시 방축도, 명도, 말도와 부안군 위도 해역에 설치한다.

인공어초설치사업은 어초를 해상에 시설하는 어초설치사업과 설치된 어초를 관리하는 어장관리사업으로 구분되고, 어초설치사업은 연안해역의 어족자원 남획과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됨에 따라 인위적으로 수산생물 산란장과 서식장을 조성해 해양생태계 회복과 지속적인 생산성 증대를 위해 지난 1974년부터 설

치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적지면적의 49.8%인 1만6,747ha를 조성했다.

어장관리사업은 어초 설치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초의 시설상태, 어장 주변 폐기물 수거, 어획조사 및 부채생물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장관리 2만2,011ha, 폐기물 158톤을 수거했으며, 지난해에 조사한 어획효과는 비설치지역보다 1.4~2.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초설치사업의 올해 사업비는 32억원으로 지난 1~2월에 시군에서 추천한 어초설치수요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추천한 어초를 대상으로 지난 3월10일 학계, 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어초관리위원회에

서 어초설치 지역과 종류, 수량(33기) 등을 결정했고, 현재는 어초 제작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어장관리사업의 올해 사업비는 1.4억원으로 설치어초 상태 확인 1.671ha, 어초 기능성 및 부채생물 조사 176ha, 폐기물 불량 산정 및 수거 처리 384ha 등 어초어장 총2,233ha를 관리할 계획으로 어초의 기능회복과 사업효과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강승구 농축수산물국장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어초설치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도, 주거 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 남원 취암·완주 어두·무주 진평·고창 봉덕마을 공모 선정

전북도는 농어촌지역 주거취약시설 개선으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 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군공모를 거쳐 신청된 6개 제안사업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지로 남원 취암마을, 완주 어두마을, 무주 진평마을, 고창 봉덕마을 등 4개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쾌적한 주거지 조성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로 지역주민이 최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거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도 자체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201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 36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올해는 12억원을 확보해 4개마을을 공모로 선정해 지원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주거지 경관 개선으로, 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마을주차장 정비, 마을광장 원터조성, 위험난간정비 등 주거지정비, 다목적센터 리모델링 등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주민공동체와 협력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 설계를 거쳐 2018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생활에 가장 불편하고 취약한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해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전북도, 공중보건 의사 163명 신규 배치

### 시군 보건소·보건지소·공립병원·응급의료기관에

전북도는 공중보건(공보)의 163명을 도내 시·군 보건소 등에 신규 배치한다.

신규 공보의들은 13일 전북교통문화연수원에서 공개 추첨을 통해 근무지를 배정받게 된다.

이번 신규 배치는 전북 지역 공보의 147명의 복무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다.

신규 공보의 163명(의과 108, 치과 16, 한의과 39)들은 3년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복무.윤리 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시·군 보건소, 보건지소, 공립병원, 응급의료기

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여성의 의대 진학이 늘고 의학대학원이 도입되면서 공보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면서 "다행히 올해는 예년보다 공보의 수가 14명 늘어 도내 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전북도, 춘계 도로정비 대대적 실시

지난 겨울철 잦은 눈비로 도로의 기능이 저하된 각종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정비에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및 재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전북도가 춘계 도로정비를 24일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도로정비는 도로 노면 포트홀 보수, 교량터널 등의 시설물 기능유지, 안전시설 및 배수시설 정비, 낙석 및 산사태 위험지역 정비, 도로표지 개선, 불법 점용시설물 정비, 도로시설물 청결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깨끗한 도로정비를 위해 노면 청소차를 이용해 도로 노면 토사를 제거하는 등 보다 나은 도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도는 도로정비가 완료되면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27일부터 5월 2일까지 도로정비 상태 등을 점검해 미비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도로정비를 실시해 도민과 우리지역을 찾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